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시 분야 선정 마이크로디그리 기반으로 실무 경험할 수 있어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우리학교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인공지능 분야에 선정됐다.

학생들은 기존 학점 체계와 연계되는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교과와 비교과 교육을 연계한 몰입형 교육 프로그램 ▲기업과 협업한 교육 과정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 7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과 개편과 일부 교육 과정은 이번달부터 시행돼 총 9개 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체의공학과)가 참여한다. 이외 학과도 추후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 기반 교육 과정이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교과와 비교과 교육을 결합해 특정 직무 역량을 빠르게 인증하는 체계다. 우리학교는 초급 7개, 중급 29개, 고급 8개로 총 44개의 세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설계했다.

학생들은 몰입형 교육과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과 프로젝트 수행을 포함

하고, 학생들은 기업의 요구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얻는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기존 학점 체계와 연계된다. 학생들은 정규 교과목을 수강해 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함께 이수하면 별도의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졸업 학점과 별도로 특정 분야의 전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교과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수강신청 사이트도 구축될 계획이다. 해당 사이트에선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수강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비전공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코딩이나 AI 경험이 없는 학생도 초

급 과정으로 기초 역량을 쌓고, 중급과 고급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 초급 과정을 밟지 않고 중급과 고급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방학엔 'AI부트 여름 캠프'와 'AI부트 겨울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 캠프에선 프로그램 체험과 취업박람회를 연계해 기업과 학생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겨울 캠프에선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방학에 진행될 '몰입형 집중 교육'을 통해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다.

사업 예산은 교육 과정 개발과 운

영, AI 실습 인프라 구축, 학생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 부학장은 "학교 교과 교육만으로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AI 실무 역량을 충분히 익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몰입형 교육을 경험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실습과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AI 관련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면에서 계속 →

물리학과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예전에는 연구 과제 계획서를 쓰는 것만으로도 바쁘게 연구처, 총무관리처, 교무처 등 유관 부서를 일일이 찾아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 여부를 협의해야 했다"면서 "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학교 지원확약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 보내면 산단에서 유관 부서 확인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어 과제 지원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화학공학과 김정(화학공학) 교수 또한 "연구 과제를 신청할 때 항상 산단과 함께 한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대부분 준비해 주고 과제 계획서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주어서 편하다"고 말했다.

## 대형 연구 과제 집중 전략 2024년부터 모니터링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지난해 대형 연구 과제 수주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MRL 과제(연 100억), G-LAMP 사업(연 50억) 등을 포함해 총 59개의 대형 연구 과제를 수주했다. 이 중 5억 원 이상 지원 과제는 44개, 10억 원 이상 지원 과제는 14개다.

홍 단장은 "연구비를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형 연구 또는 국제 공동 연구를 중심으로 수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4년부터 다음 해에 어떤 방향으로 정부에서 관련 대형 과제가 나올지 예상하고 25

년도 연구 과제 지원 계획을 미리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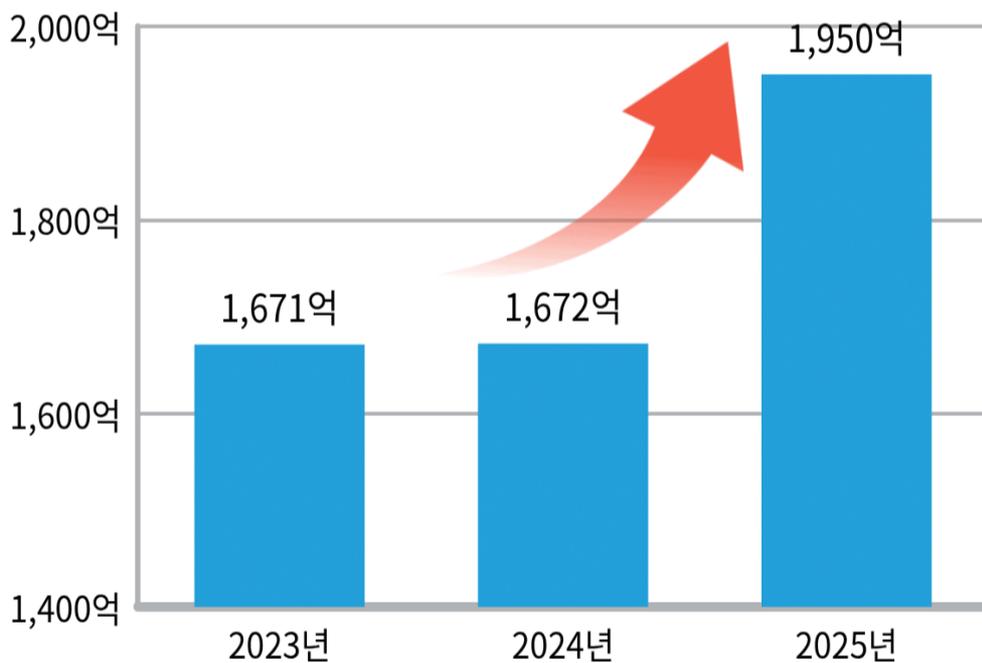
이어 "24년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라도 다음 해에 동일한 공고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매년 나오는 대형 과제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 미리 지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최종 선정이 무산됐던 '대학교초연구소(G-LAMP) 사업'은 선정에서 떨어지자마자 다음 사업 신청을 준비하며 1년 동안 실적을 쌓아 지난해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관련기사: 천체·입자·우주과학 연구, 최대 5년간 매년 50억 받아/대학주보 1747호/2025.09.01.)

## 대학연구지원체계평가서 최고등급 더 큰 비율의 간접비 확보 가능해져

대외연구비 실적은 곧 대학 재정 확충으로 이어진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진행하는 '2025 대학 연구지원 체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전국 155개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대외연구비 실적



\*단, 2025년 실적은 2026년 4월 1일자 교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해 추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부여받은 곳은 우리학교를 포함해 단 7곳 뿐이다.

해당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간접비 고시 비율이 높게 적용된다. 간접비는 교원의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 사용을 비롯해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해 학교 측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어떠한 연구 과제에 선정돼 정부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받게 되면 연구팀이 해당 연구비를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 비율은 학교에 제공되는데, 우리학교는 산학협력단이 이 비용을 관리한다.

우리학교는 기존 23.78%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받았으나 지난해 연구지원 체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올해부터 26.43%의 비율을 적용받는다.

홍 단장은 "산단으로 들어오는 간접비를 활용해 교수님들 연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산학협력단은 향후에도 연구비 수익 증대 및 간접비를 통해 대학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홍 단장은 "연구비 수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확대되는 구조"라며 "현재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정보활용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는 시설 등 학교에 환원되는 비용을 더욱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